

광주 첫 동물 화장장 건립 두고 '진통'

광주에 처음 추진되는 동물 장묘 시설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엔 화장·장례·납골을 함께 하는 장묘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무분별한 동물 사체 처리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동물 장묘 문화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역 모 장례업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산구 송학동에 추진 중인 동물 장묘시설(438㎡·2층 규모, 화장·장례·납골 포함) 건립이 주민들과 갈등으로 답보 상태다.

송학동 일대 주민들은 동물 화장터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동물 장묘시설 예정부지가 마을 10곳과 가까이 각종 환경오염과 이미지 훼손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조남 대책위원장은 "동물 화장터는 혐오 시설"이라며 "13개 부락 주민 1000여 명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건립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례업체에 ▲주민 동의 ▲진출입 구간 차로 확보 ▲내진 설계 등을 보완하라며 건축 허가를 보류했다.

최근 장례업체가 건축 재심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체와 주민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비해 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해 사회적 갈등 반복, 불법 투기 등 각종 부작용도 나온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각 2만3824마리와 1만6403마리다. 등록률이 전국 평균 20%에 그쳐 실제 반려동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또는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하면 된다. 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 동물 장묘 업체는 28곳(화장·장례·납골 모두 허가)은 21곳, 나머지는 일부 허가)으로 반려동물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엔 평동산단 주변에 동물 장례만 치르는 업체 1곳이 있는데, 경영난으로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민들은 키우던 반려동물

전국에 동물장묘시설 28곳뿐...광주·전남엔 없어 동물사체 불법 투기·무허가 업체 난립 등 부작용 동물장묘 문화 개선 위한 법제·행정적 지원 필요

물이 죽을 경우 다른 시·도의 장묘 업체를 찾거나 사체를 생활·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련 규정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에선 월 평균 반려동물 사체 5마리~10마리가 버려진 채로 발견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는 5.8%~6.2% 수준에 불과하다.

또 반려동물의 장례 수요가 늘면

서 회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물장묘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30여 곳 이상"이라며 "무허가 업체는 죽은 동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화장하면서 비위생적으로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도 받지 않아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어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무허가 업체,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임실군 등이 동물 장묘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견학을 추진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해 긍정적 사고를 이끈 사례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 화장시설·도심 장례식장 설치 연계 검토, 반려동물 대상 확대 뒤 규제 개선 등 동물 보호와 반려인의 정서 안정 등을 함께 만족시킬 법제·행정적 지원도 필요할 상황이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동물 복지 차원에서 인식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반려동물의 사후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적 검토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고로쇠 수액 채취 11일 남덕유산 지역 경남 거창군 북상면 창선마을의 최한식 할아버지가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전남 일부 교원인사 사전 유출 '빈축'

전남지역 일부 교원들의 인사자료가 사전에 노출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초안임에도 교육장 결재를 거쳐 현장에 전달돼 탈취가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목포·영암·무안 등 인근 3개 교육청에서 전입한 유치원 교사 6명에 대한 전보인사 결과를 '일립 공문' 형태로 공개했다.

3월1일자 정기인사로, 황모 교사

를 진도 A초교, 주모 교사를 진도 B초교, 김모 교사를 진도 C초교 병설유치원으로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공문은 목포·영암·무안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에까지 발송했다.

공문 발송에 앞서 진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당일 오전 교육장 결재까지 마쳤다. 도 본청에 앞서 지역교육청에서 대외비인 인사 발령결과가 발표된 것도 논란거리다.

문제는 해당 공문에 나온 인사 내용이 최종본이 아니고 해당 학교 역시 실제 전보 발령지가 아닌 회람

지역인 것으로 확인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6명 중 일부는 최종 인사발령 결과가 사전 노출된 공문과 달랐다.

더욱이 해당 공문의 발송처가 진도교육청임에도 발송지는 엉뚱하게 순천교육청 교육장으로 적시되는 등 엉터리 공문임에도 여과없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도교육청은 공문작업이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공문발송 2시간 후 "일선 학교 등에 발송된 인사발령 공문은 행정상 오류인 만큼 폐기 처분해 달라"고 부랴부랴 수정 공문을 발송했다.

김정환 기자

美지원 시리아민주군, IS격퇴 '난항'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민주군(SDF)이 시리아내 극단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 척결을 위한 마지막 전투에 나선 가운데 IS세력의 극렬한 저항으로 소탕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SDF가 지난 9일 저녁 시리아 동부에 남아있는 IS의 마지막 거점지역인 데이크에즈르주 바구즈 마을에 총공세를 펼쳤으나 IS세력이 마을 지하 방호망에서 폭격을 피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주말 총공세 과정에서 SDF 군인 2명이 IS세력의 저항으로 사망했으며, 1대의 SDF 차량이 전복돼 부상자가 발생했다.

IS 무장세력들은 마을 집집마다 지하터널을 뚫어 SDF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고, 열담자 미사일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는 IS세력 가운데 가장 노력하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500여명의 IS 대원들이 집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1500명의 민간인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돼 SDF가 소탕 작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반(反)IS 국제연대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칼리프(IS가 선언한 이슬람 제국) 지역을 100%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 보도돌진 9명 부상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10일 새벽(현지시간) 픽업 트럭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9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격자들과 구급 요원들은 사람들을 친 다음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선 이 트럭을 함께 들어올려 차 밑에 깔려 있던 사람들을 빼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플러턴의 이 번화가에서 술집들과 레스토랑이 문을 닫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시간에 인파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22세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지 경찰의 존 레이더스 경찰관은 "정말 혼란스러운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도요타 타코마 픽업 트럭은 인도 경계석을 뛰어 넘어 보도를 깨운 사람들을 친 다음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차 밑에는 부상자 일부가 깔리거나 갇혀있었다.

목격자들은 부상자 중의 한 소녀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울렸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18세~49세로 경찰에서 위급한 중상자까지 부상정도가 다양하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지가 보도했다.

체포된 크리스토퍼 솔리스는 증상에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음주 또는 마약에 취한(DUI) 상태를 부인해 위중증의가 추가 되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中 구이저우성 고속도로서 70중 추돌사고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고속도로 두 곳에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CCTV 영문채널 CGTN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신안~젠허 고속도로에서 차량 70여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커우~원안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40여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끄러워진 도로 탓에 두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들로 인해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0명은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언론인, 식사도중 식당서 총격 사망

멕시코에서 언론인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다가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멕시코는 올해만 두 번째 언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인 피살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헤수스 에우헤니오 라모스 로드리게스는 전날 오전 타바스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다가 총을 맞고 숨졌다.

로드리게스는 매일 두 차례 방송되는 라디오를 진행했다. 정부 출연기 관인 노트릭스에 의하면 그는 올해 멕시코에서 피살된 두 번째 언론인이며, 총격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